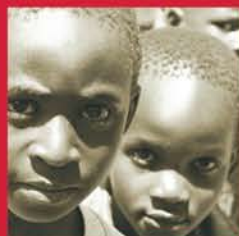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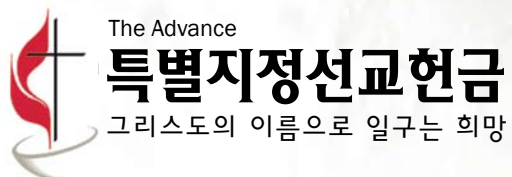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7:38, 표준새번역





비전

〈특별지정선교헌금〉은 희망을 전하고, 힘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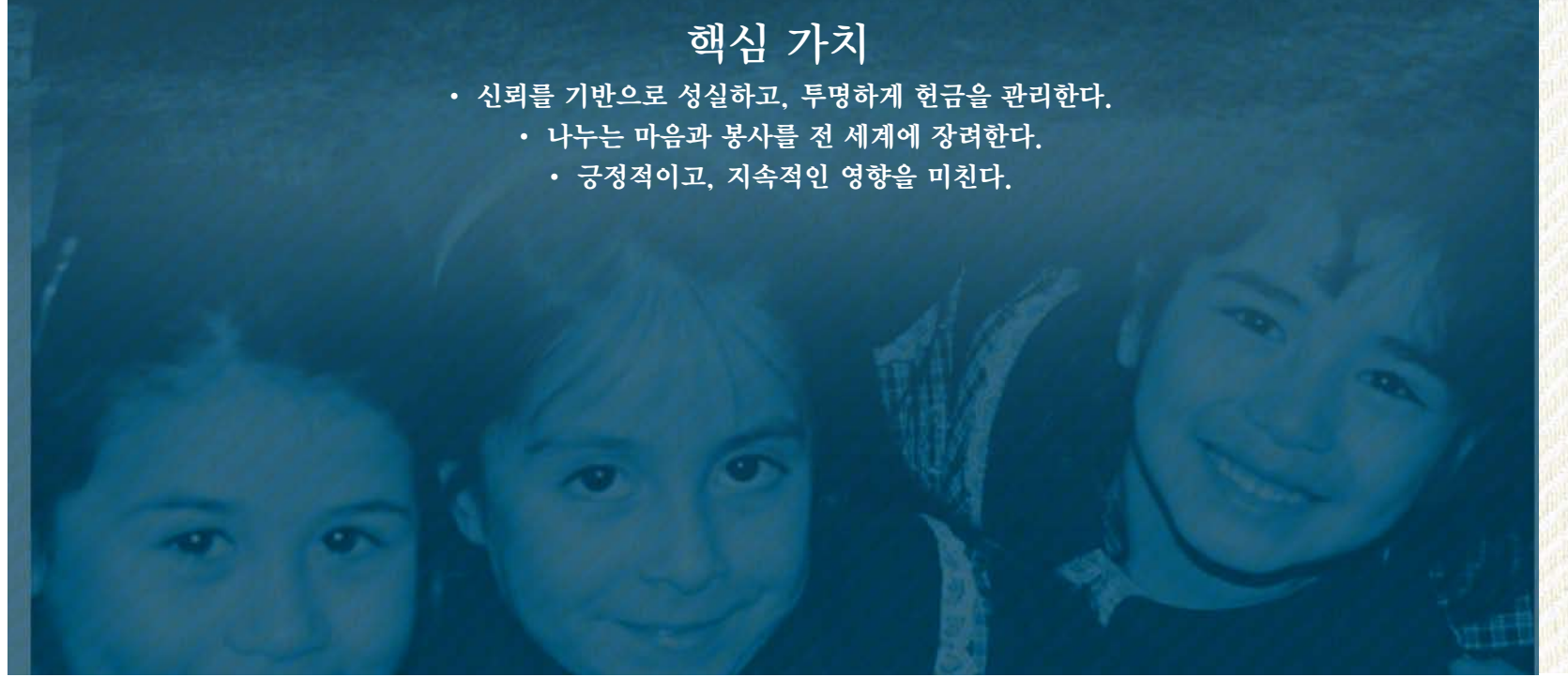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이 세상과 함께하려는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프로젝트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선교사와 후원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써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목적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의 100% 전액이 지정한 선교 사역이나 선교사를 위해 사용되는 연합감리교회의 공신력 있는 지정 헌금 프로그램이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의 목적은 전 세계의 선교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

-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헌금을 관리한다.
- 나누는 마음과 봉사를 전 세계에 장려한다.
-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유산

<특별지정선교헌금>의 간략한 역사

1948년, 감리교회 총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4차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도처의 기독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상처 입은 세계의 복구와 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2년에 <특별지정선교헌금>은 감리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고,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합쳐 연합감리교회가 된 1968년 이후에도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연합감리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그 출발 당시부터 개인의 헌금이든 교회의 헌금이든 100% 전액이 특별지정선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사역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주로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특히 전쟁 난민 수용소를 위한 프로젝트에 주력하였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2차 헌금”이라 불린다. “1차 헌금”으로는 각 교회가 내는 세계선교비 및 선교분담금, 그리고 연회선교비 등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선교 노력에 생명줄이 되어주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그 동안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13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으로 선교와 사역을 지원하였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이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